

광주체전 스타 총집합

체조

남자 3인방 평행봉 대결 백미

(김대은·양태영·유원철)

기체체조는 수많은 인기 스포츠 중 인간의 신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대표 종목이다.

조각같은 근육질 몸매의 남자선수가 평행봉 위에서 굽은 두 팔로 파워 넘치는 연기를 펼칠 때면 보는 이들의 입에선 탄성이 절로 새어나온다.

가녀린 신체로 섬세하고 우아한 연기를 뽐내는 여자부 종목도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 잡기는 마찬가지.

이번 제 88회 광주전국체전(10월 8~14일)에는 최고를 자부하는 최고의 체조 스타들이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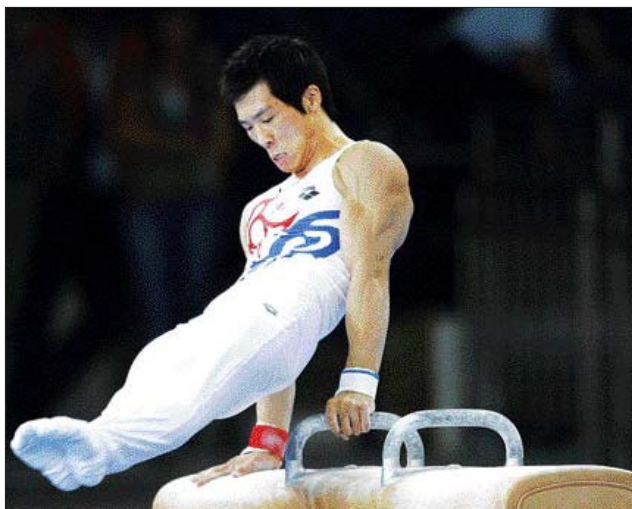
남자체조는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등 6개 종목이 열리는 데, 김대은(전남)과 양태영, 유원철(이상 경북) 등 '한국 체조 3인방'이 맞붙는 평행봉 대결이 백미로 꼽힌다.

남자 평행봉은 특히 지난 9일 막을 내린 세계체조선수권 대회에서 김대은이 금메달을 따내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종목이다.

김대은은 지난해 도하아시아대회에서도 부상당한 양태영 대신 대타로 출전한 평행봉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하기도 했다.



김대은



양태영



유원철

찾아가면 체조 스타들의 다양하고 화려한 경기를 맘껏 감상할 수 있고, 리듬체조는 9일 단 하루만 조대여고 체육관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 최고 수준 연기 한눈에

여자부 박은경·배물음 각축

9일부터 호남대체육관에서

이번 전국체전에서 김대은에 도전장을 내민 양태영도 한국 남자체조에선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선수다.

양태영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평행봉 종목에서 심판진의 오심으로 난이도가 잘못 채점되는 바람에 폴 헵(미국)에 밀리면서 동메달에 그쳐 더욱 유명해진 인물이다.

아름다운 각선미를 뽐내는 여자체조에선 박은경(2007시즌 종합 선수권 6관왕)과 배물음(김천전국체전 3관왕·이상 광주), 유한술(김천전국체전 개인종합 우승·경북·이상 고등부)이, 일반부에선 김효빈(광주), 강지나(울산), 여수정(경기도) 등이 금메달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자부는 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운동 등 4종목이 치러진다.

도구와 음악이 결합어진 리듬체조도 볼거리가 가득한 종목이다.

딱딱할 것 같은 체조에 음악이 결합어져 동적이면서도 곡선적인 미를 잘 보여주는 리듬체조는 지난 1984년 LA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뒤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스포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드럽게 뛰어오르다가도 강렬한 몸 동작으로 관중들을 사로잡는 리듬체조는 강약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종목으로 후프, 볼, 곤봉, 리본을 가지고 만드는 동작과 선들은 마치 오선지 위를 내달리는 유희와 같다.

그러나 한국 리듬체조는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치고, 대중화도 안된 탓에 국내에선 경기를 관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국체전은 리듬체조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국체전 기간인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호남대 체육관을



아시아 카누선수권 개막

13일 강릉도 화천군 화천호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카누선수권대회 K-4 남자 시니어 1000m 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남동훈 역도 4관왕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남자좌식배구단체전에서 광주가 전국 최강 전북에 역전승을 거둬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며 광주의 상위 입상 분위기를 주도했다.

광주는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일째인 13일 구기종목의 선전과 역도, 탁구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금 31개, 은 28개, 동 18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7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전남은 금메달 추가에 실패하며 은메달 10개와 동메달 14개를 추가하는데 그쳐 합계 금 4개, 은 25개, 동 16개를 획득해 15위에 머물렀다.

광주는 영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좌식배구 결승전에서 전국 최강 전북을 맞아

광주 남자좌식배구 전북에 역전승 '금'

광주 금 31개 7위...전남 금 4개 15위

1세트를 25-18로 승리하며 기세를 제압했으나 2,3세트를 뺏겨 패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삼기일정한 광주팀은 4세트를 25-21로 따내 2-2 동점을 만든 뒤 막판 5세트에서 15-11로 전북을 누르고 역전승을 거둬 금메달을 획득, 막판 선수단에 힘을 불어넣었다.

또 정신지체 하교 축구팀도 부산을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3-2로 승리,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남동훈(34)은 역도 남자 77kg에서 벤치프

레스, 파워리프팅, 개인종합 등 4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강대웅(양광 남 개인), 김란숙(양광 여 개인), 김영건·정성실(탁구 남 복식), 김란숙(양광 여 개인)은 금메달을 따냈다.

심우기(육상 남 창던지기), 최정희(수영 여 평영), 김하은(육상 여 400m) 김동·박준영(탁구 남 복식), 김란숙(양광 여 개인)은 은메달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여자배구, 월드컵 출전권도 획득

아시아선수권 4승1패로 2위

한국 여자배구가 제14회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4승1패를 기록해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컵 출전권까지 사실상 획득하면서 대회를 마감했다.

이정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3일

(이하 한국시간)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열린 8강 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레프트 배유나(한일전산어고) 등의 활약으로 약체 호주를 3-0(25-17 25-13 25-7)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한국은 8강 폴리그에서 중국·일본전을 제외한 성적으로 4승1패를 기록, 태국에 이어 2위에 올라 월드컵 출전

을 사실상 확정했다.

한국은 이에 앞서 상위 3개팀까지 주어지는 내년 5월 베이징올림픽 세계 예선전 티켓을 확보했다.

12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컵에는 대륙별 선수권대회 2위 팀 가운데 4개 팀까지 세계 랭킹 순으로 출전 자격을 얻는데 한국(세계 9위)은 아프리카 2위인 알제리(세계 45위)보다 랭킹에서 앞선다. 대표팀은 15일 입국할 예정이다.

태권도 전자호구 광주체전서 사용

태권도 전자호구가 전국체전에 도입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3일 오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호텔에서 2007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광주에서 개막하는 제88회 전국체전에서 전자호구를 사용하기로 했다.

전자호구는 세계태권도연맹(WTF)이 공인한 라저스트사의 제품을 쓴다.

WTF는 지난해 9월 라저스트사와 전자호구 공인 계약을 했지만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5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2008 베이징올림픽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도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전자호구 도입에 따르는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 전자호구 사용에 걸맞은 운영지침을 만드는 조건으로 전국체전 도입을 결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OC 하계U대회 실시단 광주 방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13년) 개최지 평가 실시단이 13일 단독으로 하계U대회 유치 신청서를 접수한 광주를 방문, 월드컵경기장 등 대회장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우천으로 연기됐던 프로야구

KIA 8게임 등 19경기 남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우천으로 연기된 19경기(삼성 7, 한화 7, 현대 4, KIA 8, 두산 3, SK 4, 롯데 2, LG 3)의 잔여 일정을 추가로 확정 발표했다.

잔여 경기일정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시즌 최종일에 8게임이 동시에 페넌트레이스를

종료하도록 편성했다. 23일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2시로 변경하고 평일과 토요일은 종전과 같다.

잔여 경기일정 발표 이후 우천으로 순연되는 경기는 예비일에 진행되고, 예비일이 없을 경우 10월 1일 이후로 재편성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잔여 경기 일정

Table with columns: 일자, 팀명, 홈/원, 상대팀, 경기장, 시작. Rows include games for teams like SK, 두산, 삼, 삼성, 한, 한화, L=LG, 롯데, 현대, KIA, 에=예비일.

김병현 시즌 10승 실패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사진)이 삼진 쇼를 펼쳤지만 홈런 두 방에 무너지며 시즌 10승 달성에 실패했다. 김병현은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돌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 선발등판해 5.2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뽑아냈지만 홈런 2개 등 안타 7개와 4사구 5개로 4실점했다.

3-4로 뒤진 6회 교체된 김병현은 타선이 4-4 동점을 만들면서 패전을 면했다.

지난 8월 2일 콜로라도전처럼 자신의 한 경기 최대 타이 기록인 삼진 10개를 잡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

플로리다는 6회말 제미마 허미다의 솔로 홈런으로 김병현을 패전 위기에 던져냈고 연장 12회말 2사 3루에서 터진 토트 린든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5-4로 승리했다.